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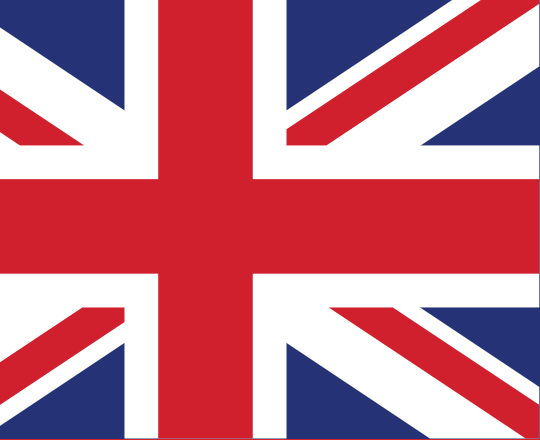
# 어서와~

유럽에 여러 번 촬영과 여행을 갔어도 영국은 처음 가보는 낯선 곳이다.  
그것도 6월에 유럽을 찾은 것도 거의 처음이어서 햇빛과 공기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여행을 갔던 시기도 한국에서는 미세먼지에 한참 시달리던 시기여서 그런지 영국의 공기는 너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나의 휴가는 말이 휴가지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지 그곳의 풍광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열심히 촬영하는, 본인의 직업을 자유롭게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여행에는 4K HLG 촬영이 가능한 소니 PXW-Z90 소형카메라 외에도 테스트를 위한 작은 스틸 카메라인 소니 RX100 M6도 같이 사용했다. 숙소를 템즈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정해서 런던이나 웨스트민스터 궁전, 빅벤 등을 걸어서 둘러 볼 수 있어서 아침 산책 코스로 템즈강 다리를 건너다니며 촬영 할 수 있었던 점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 영국은 처음이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숙소 주변을 걸어서 촬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내게는 바로 힐링이 되는 일이기도 해서, 할당 어더를 가더라도 부지런히 나만을 위한 촬영을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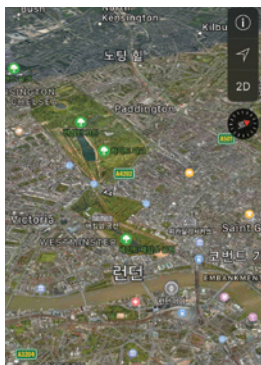


6월의 영국은  
새벽 4시경부터 해가 떠서  
저녁 9시 30분경에야  
밤이 되는, 태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기였고,  
런던에 있는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등 영국에서는  
가장 축복받은 시기라고  
현지인들도 말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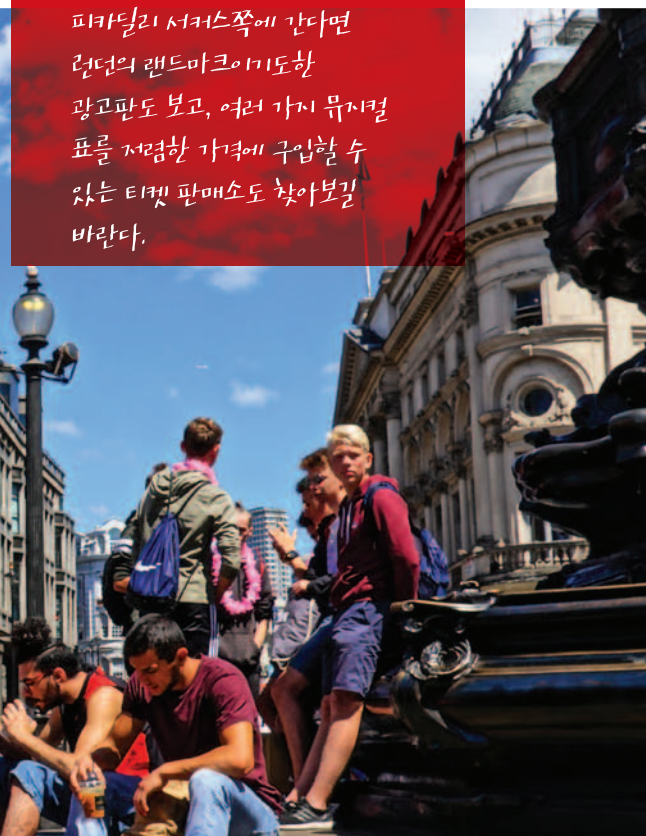
런던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자전거, 이층 버스, 그리고  
의외로 공간이 넓어서 여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  
등이 있는데,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을 다녔고, 많은 유명  
관광지들이 숙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3, 4 정거장  
정도는 그냥 열심히 걸어서  
다녔다.





버킹엄 궁전이나 피카딜리 서커스, 트라팔가 광장 등까지  
거리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촬영을  
위해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굉장히 쉬웠다.

피카딜리 서커스쪽에 간다면  
런던의 랜드마크이기도한  
광고판도 보고, 여러 가지 뮤지컬  
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티켓 판매소도 찾아보길  
바란다.





특히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낮에 무료 음악회를 해주어서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적압상 현장 중계를 하는 화면도 보면서 런던시민들과 영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무료 공연이 영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템스강을 건너 사우스뱅크 센터 쪽 강변에서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태양을 즐기며 야외에서 앉지도 않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인파들을 보면서 주말이 주는 즐거움을 영국인들은 뜨겁게 즐기고 있었다.

템스강을 즐기는 방법은 강변의 음식점들 외에도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파티도 많았는데, 유람선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템스강 가의 예술가들과 밀레니엄 브릿지의 멋진 경관은 작은 강이지만 다양한 다리의 모습과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장소로서의 역할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았다. 단순히 쉴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곳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는데, 이런 것들을 영국에서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런 면에서 영국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다.



영국을 방문한 시기가 월드컵 기간이어서 많은 펍에서는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세계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일행도 독일과 경기를 하던 때에 펍에서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도 옆 테이블에서 독일 관광객들과 같이 관람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와 당연히 이길 것이라 여겼던 독일 관광객과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주위의 영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어서 감사했던 기억이 생생하기도 하다.



영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맥주인데  
에일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맛보는 맥주의  
맛은 새달랐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영국식 에일과 미국식 에일의 맛이 다르고,  
병으로 먹는 것과 새맥주로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많이 먹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많은 브루어리의 맥주들을  
먹어보기 위해 펍을 순례(?)하는 과정도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펍이 저녁 11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는 점과 음식은 그 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늦게 저녁을 먹을 경우에는 음식을 못  
먹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아쉬웠다. ☹



일찍 펍이 문을 닫아서  
그런지 오후 5시부터  
펍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왜 만화 펍은  
모두 손님들로 붐비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내수시장도  
좋은 것 같지만,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다.

